

##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 인도에 이은 서남아 두 번째 FTA 타결, 최근 타결국 중 최대 시장
- K-소비재·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개선 및 인프라·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4일(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Khandakar Abdul Muktadir)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과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존 FTA 구조와 개방 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여 사실상 협상을 종료하고, 잔여 기술적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합의

### 【주요 경과】

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총 5차례 공식협상('25.8월, '26.1·4·6·7월) 및 다수의 회기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 들어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원산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3월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계기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협상 모멘텀을 이어 왔고, 이번 양국 통상장관 간 후속 회담을 계기로 원칙적 타결에 이르렀다.

### 【한-방글라데시 CEPA의 의의】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나라가 서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CEPA로서, '73년 수교 이래 53년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교역을 넘어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 8위 인구 대국(약 1.7억 명)으로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6%의 성장세를 이어 온 방글라데시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도로·전력망 등 높은 인프라 수요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도국 졸업을 앞두고 자국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면제 또는 인하제도(일반특혜관세제도 : GSP)\*의 종료 또는 인하에 대비하여,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 WTO 협정상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서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상품에 대한 무관세 또는 인하를 허용하는 제도

이번 CEPA를 통해 방글라데시는 주력 산업인 섬유·의류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 한국을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글라데시는 첨단산업과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고도화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 성과】

이번 원칙적 타결의 주요 성과는 ①서남아 유망시장 진출 기반 확보, ②K-소비재 및 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여건 개선, ③인프라·산업 협력 기반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양국은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상품 자유화율(잠정) : (한국) 품목수81.7%, 수입액97.5%, (방글라데시) 품목수81.4%, 수입액87.5%

## < ① 서남아 유망시장 진출 기반 확보 >

방글라데시는 현 정부가 통상 다변화 전략에 따라 타결한 신규 FTA 상대국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다. 약 1억 7천만 명의 인구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도시화·산업화 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시장개방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 기반이 마련되고 양국 간 공급망이 확대되는 한편, 섬유·의류 생산 기반과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연관 산업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교역도 '25년 2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방글라데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② K-소비재 및 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개선과 및 기업활동 기반 강화 >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K-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관세율 : 라면(53.6%), 커피 조제품(53.6%), 과자류(85.6%), 조미김(53.6%)

또한, 대(對)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디젤유)의 관세가 철폐된다. 반조립(CKD)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 화물차) 및 자동차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되며, 완성차(CBU)에 대해서는 타국 대비 비차별 대우를 확보함으로써,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활기유, 세탁기 등 방글라데시가 체결한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對방글라데시 주력 수출품('25) : 석유제품(7.9억불), 살충제(0.5억불), 철강(0.5억불) 등

\* 주요 품목별 관세철폐(현 관세율) : 경유(6%), 기유(28%), CKD 자동차(53.6~220%), 자동차부품(28%), 리튬이온 배터리(28%), 에어컨(28%), 세탁기(28%), 조미김(53.6%) 등

아울러 석유·화학제품,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우리 주력 수출품과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에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재료·부품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우리 수출 유망품목인 조미김의 경우 핵심 원재료는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과 수출을 연계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선 농축수산물 전반에는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상품 시장개방과 함께, K-콘텐츠(시청각), 이러닝(e-learning), 의료, 통신, 건설, 유통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90여 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콘텐츠·교육·의료·인프라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이전 요구 금지 등 디지털무역 주요 규범에 합의하여 진출기업의 정보 수집 및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유명상표 보호 강화와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 대비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규 도입하여 방글라데시 진출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두텁게 마련하였다.

### < ③ 인프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방글라데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에너지·전력망,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물류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섬유 등 제조업과 플랜트 등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등 인프라 연관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출 기반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항만·발전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철강, 건설중장비 등 인프라·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설계·시공·엔지니어링 등 사업 참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관세율 : 철강 냉연·열연강판(5~10%), 굴착기·불도저 등(1%)

양측은 또한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섬유·할랄·디지털 전환·에너지·자원·공급망·청정경제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을 CEPA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확충 및 산업 고도화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연계하고, 양국 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방글라데시 CEPA는 1억 7천만 명의 유망 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가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계획 및 현지 일정】

산업부는 잔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문 정식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우리 기업에 안내하기 위한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CEPA 원칙적 타결 전날인 8월 3일(월) 타리크 라흐만 총리,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장(BIDA)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CEPA 타결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면담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지 시장·규제 동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점검하였다.

|       |                       |     |     |                    |
|-------|-----------------------|-----|-----|--------------------|
| 담당 부서 | 통상협정교섭관<br>통상협정협상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이민영 (044-203-5830) |
|       |                       | 담당자 | 사무관 | 신승현 (044-203-5837) |
|       |                       | 담당자 | 주무관 | 석지혜 (044-203-5835) |
|       | 통상협정교섭관<br>통상협정상품과    | 책임자 | 과 장 | 고장원 (044-203-579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유정 (044-203-5795)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희령 (044-203-5791) |
|       | 통상협정교섭관<br>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 책임자 | 과 장 | 김수진 (044-203-5810) |
|       |                       | 책임자 | 팀 장 | 민한빛 (044-203-5812) |
|       |                       | 담당자 | 사무관 | 진경휘 (044-203-5819) |
|       |                       | 담당자 | 사무관 | 유채연 (044-203-5811) |
|       | 통상협정교섭관<br>통상협정무역규범과  | 담당자 | 주무관 | 박민선 (044-203-5817) |
|       |                       | 책임자 | 팀 장 | 이지현 (044-203-5821) |
|       |                       | 담당자 | 사무관 | 심주영 (044-203-5828)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다애 (044-203-5826) |
|       |                       | 담당자 | 주무관 | 김용찬 (044-203-5829) |

참고 1

한-방글라데시 교역 및 투자 현황

□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6.1-6         |
|------|------------------|-----------------|-----------------|------------------|------------------|-----------------|-----------------|
| 수 출  | 1,033<br>(-19.4) | 1,636<br>(58.3) | 2,357<br>(44.1) | 1,626<br>(-31.0) | 1,301<br>(-20.0) | 1,758<br>(35.1) | 1,455<br>(76.0) |
| 수 입  | 393<br>(-2.9)    | 552<br>(40.4)   | 677<br>(22.8)   | 649<br>(-4.2)    | 683<br>(5.2)     | 613<br>(-10.2)  | 278<br>(-7.9)   |
| 무역수지 | 640              | 1,084           | 1,680           | 977              | 618              | 1,145           | 1,177           |
| 총교역액 | 1,426            | 2,188           | 3,034           | 2,275            | 1,984            | 2,371           | 1,733           |

※ '26년 6월 기준 방글라데시는 우리의 수출 35위, 수입 60위, 교역 47위 파트너

□ '25년 주요 교역품목 현황

(MTI 3단위 기준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수출품목    | 금액(백만불) | 비중(%) | 수입품목   | 금액(백만불) | 비중(%) |
|---------|---------|-------|--------|---------|-------|
| 석유제품    | 815     | 46.4  | 의류     | 547     | 89.2  |
| 철강판     | 132     | 7.5   | 신발     | 21      | 3.4   |
| 합성수지    | 94      | 5.3   | 기호식품   | 12      | 2.0   |
| 기타직물    | 53      | 3.0   | 가방     | 6       | 1.0   |
| 농약      | 53      | 3.0   | 기타섬유제품 | 4       | 0.7   |
| 염료및안료   | 44      | 2.5   | 운동레저용품 | 3       | 0.5   |
| 종이제품    | 32      | 1.8   | 동제품    | 2       | 0.3   |
| 인조장섬유직물 | 28      | 1.6   | 기타직물   | 2       | 0.3   |
| 편직물     | 27      | 1.5   | 천연섬유   | 2       | 0.3   |
| 섬유및화학기계 | 26      | 1.5   | 수산부산물  | 1       | 0.2   |
| 전체 수출액  | 1,758   |       | 전체 수입액 | 613     |       |

□ 투자현황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는 건수 /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부)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6.1-3    |
|-----|-------------|------------|-------------|-------------|------------|------------|------------|
| 한→방 | 63<br>(60)  | 49<br>(49) | 78<br>(80)  | 33<br>(81)  | 49<br>(77) | 68<br>(39) | 33<br>(15) |
| 방→한 | 1.2<br>(13) | 0.9<br>(8) | 1.2<br>(15) | 1.3<br>(14) | 0.8<br>(9) | 0.4<br>(6) | 0.1<br>(1) |

## 1. 추진배경

-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 대국(1.7억 명)이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거대시장으로, 서남아 진출 거점 마련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
  - 방글라데시는 '26.11월 최빈개도국(LDC) 졸업\*을 앞두고 RCEP 가입 및 주요국과의 양자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
  - \* WTO 협정상 비차별원칙의 예외로서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상품에 대한 무관세 또는 인하를 허용하는 제도
- 한-방 CEPA는 정부 출범 이후 통상 다변화 전략에 따른 신규 FTA 가운데 최대 시장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 확대 기여 예상
  - \* 한-방 교역액(억불) : ('21) 22 → ('22) 30 → ('23) 23 → ('24) 20 → ('25) 24

## 2. 협상경과

- '24.11월 협상 개시 후 다섯 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의 회기간 협상 진행
  - '26.3월 WTO MC-14 계기 통상장관회담에서 방-일 EPA 수준으로 상반기 중 타결기로 합의, 이후 상품·서비스 오퍼 교환 등 협상 본격 진전
- 핵심 분과 회기간 협상(7.22~23, 다카)에서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의류 원산지 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 협상 타결 모멘텀 확보
- 이어 제5차 공식협상(7.27~31, 서울)에서 잔여 쟁점을 집중 해소하고, 통상장관회담 계기 원칙적 타결 선언 추진(8.4)
  - 상품 시장개방 등 핵심 쟁점은 방측 통상장관 직접 설득을 통해 합의 모색

## 3. 주요 내용

- (상품 양허) 양측은 상호 주력 수출 품목을 고르게 반영한 높은 수준 개방에 합의함으로써 교역 확대 가속화 기반 마련
  - \* (韓) 품목수 기준 81.7%, 수입액 기준 97.5% (방) 품목수 기준 81.4%, 수입액 기준 87.5%

-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열연·냉연), **석유제품**(디젤유·기유) 및 **CKD 자동차·車부품** 관세 철폐 확보

\* 對방글라데시 수출 규모(3개년 평균) : (철강) 3.9백만불, (석유제품) 135.5백만불, (CKD 자동차) 1.7만불, (車부품) 3.2백만불

- 라면·커피조제품·과자·딸기 등 **K-푸드** 관세철폐로 시장진출 기반 마련

- 방-일 EPA 미양허 품목인 **윤활기유**, **세탁기**,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대한 양허 확보에 따라 관세 철폐 시 우리 기업의 추가 경쟁력 확보

- 방측의 주력 수출 품목인 **의류와 신발 전품목**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되, **순면사** 등 민감 섬유류, 민감 농산물은 양허제외하여 국내 생산기반 보호

- **(원산지)** 주력 수출품(석유·화학제품,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과 K-푸드 등의 원산지 인정에 유리한 기준 마련

- **(서비스)** 시청각, e러닝, 의료, 건설, 유통 등 90개 유망 분야 확보

- **(투자·지재권)** 한-방 양자 투자보장협정(BIT)에 없었던 ISDS(투자자-정부 소송) 도입 및 우리 상품의 특허, 상표 등 보호 강화

- **(디지털)** 우리 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경간 정보 이전, 종이 없는 무역 등 주요 조항 합의

## 4. 기대효과

- ❶ 서남아 거대시장이자 신규 FTA 상대국으로 최대 시장 진출 거점 확보

- ❷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의 일본 대비 경쟁력 확보 및 한류 상품·K-소비재 진출 여건 개선

\* 對방글라데시 수출 주력 품목(25): 1위 석유제품(7.9억불), 2위 살충제(0.5억불), 3위 철강(0.5억불)

- ❸ 도로, 전력망 등 높은 투자·인프라 수요에 대응한 진출 기반 강화

## □ 자유화 수준

- 품목수 기준 양측 모두 80% 이상의 자유화 수준 달성, 수입액 기준으로는 최빈개발도상국(LDC)인 방글라데시에 대해 약 10% 차이 허용

\* 현재 방글라데시에 대해 LDC 특혜관세(전체 품목 중 89%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 중이며, 최빈개도국 졸업 후 3년의 유예기간 종료시 특혜관세 적용 종료

- 우리측 자유화 수준(잠정) : 품목수 기준 81.7%, 수입액 기준 97.5%
- 방측 자유화 수준(잠정) : 품목수 기준 81.4%\*, 수입액 기준 87.5%

\* '26.2월 서명된 방글라데시-일본 EPA 대비 품목수 기준 약 1.2%p 더 개방했으며, 최장 철폐 기간인 18년 철폐 품목수는 일본 수준(397개) 대비 적은 390개

## □ 방글라데시측 양허 주요내용

- (철강) 냉연·열연, 스테인리스강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

\* 철강은 對방글라데시 수출액의 11% 차지, 방글라데시의 활발한 인프라 개발 수요로 건설·조선 등의 분야에서 철강 수입 수요 증가 예상

- (석유제품) 우리측의 對방글라데시 최대 수출 품목인 디젤유와 기유의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우리 석유제품의 수출 활로 마련

- (자동차) CKD 자동차(승용차, 화물차)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완성차(CBU)에 대해서는 타국 대비 비차별 대우\* 확보

\* 타국에 관세 철폐 또는 여타 혜택 부여시, 우리측에도 자동으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

- 중고차 위주인 방글라데시 자동차 시장에서 수리, 정비 수요 등으로 수출이 유망한 자동차 부품 소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기계·가전) 농업용·섬유용 기계\* 및 세탁기·에어컨에 대해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기계류 및 가전제품 수출 증대 예상

\* 의류 봉제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섬유 생산설비 수요 多

- 굴착기, 불도저 등 건설중장비에 대한 관세도 발효 즉시 철폐되어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진행 예정인 방글라데시로의 수출 증대 기대
- (K-푸드)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 주요 K-푸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방글라데시 소비재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對방글라데시 주요 수출 품목인 사료용 조제품\*, 채소종자, 옥수수 전분 등에 대한 관세 철폐 확보로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예상
  - \* 농축산업이 방글라데시 GDP 약 13% 차지, 가축 사료 시장 연평균 10% 이상 성장 중
- (의료기기) 초음파 기기, 심전계 등 의료기기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의료기기 수출 확대 기대
  - \* 방글라데시 소득 수준 증가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시장 성장 추세

## □ 우리측 양허 주요내용

- (의류·신발) 방측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와 신발 소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여 소비자 후생 확대에 기여
  - 반면, 순면사 등 민감 섬유류는 양허제외하여 국내 생산 기반 보호
  - \* 현재 의류 99% 및 신발 소품목에 대해 LDC 특혜관세 0% 적용 중
- (가죽·황마) 방측 수출 주력 품목인 가죽제품(의류·가방·벨트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방측 특산품인 황마\* 및 황마 제품 관세 철폐
  - \* 친환경 식물성 섬유로, 카펫·포대·가방 등 각종 섬유 제품의 원료로 사용
- (농산물) 방측 주요 수출품 중 향신료(카레, 계피 등), 홍차, 빵류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되, 잎담배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미개방
  - 또한, 쌀, 천연꿀, 과일류, 쇠고기 등 전통적 민감 농산물은 양허 제외하여 국내 생산기반 보호